

영광군, 전국 군 단위 최초 ‘인구활력지역’ 지정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행·재정적 특례 지원

장세일 군수 “오래 머물고 싶은 영광 만들기 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9개 지표로 산정한 인구활력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향후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등 기존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영광 인구는 2021년 5만2067명에서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541명(3.0%) 증

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출생아는 393명, 혼인 건수는 200건으로, 출생아와 혼인 건수의 연평균 증감율은 각각 0.6%, 10.1%를 기록했다.

군은 그동안 인구문제를 군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정착, 교육·돌봄 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명에 부군수제와 청년전용예산제를 통해 정책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군서면 안터마을과 대마면 서로마을에는 청년마을을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안정적 인 주거 기반과 지역 활동 기회를 함께 마련해 청년들이 영광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돌봄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미래교육재단 출범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힘쓰고,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통해 청년커뮤니티활성화와 육아 지원을 연계하며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지역 생활을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이다.

군민의 의견과 사업별 성과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 회복 흐름이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인구활력·지역 지정은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미 있는 변화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군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영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장성~용산 KTX 빨라졌다…운행시간 1시간 단축

‘호남고속선’ 신설…논산·계룡·서대전 미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속철도 KTX-산선의 운행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역을 경유해 서울을 오가던 2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1개 노선이 ‘호남고속선’으로 변경 신설됐다.

상행선은 장성-정읍-김제-익산-천안-아산-광명-용산, 하행선은 용산-오송-익산-김제-장성으로 변경돼 논산, 계룡, 서대전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선을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1시간 가량 단축된다. 장성에서 오후 5시 14분에 출발해 오후 8시 27분에

서울역에 도착하던 상행 노선이 오후 5시 24분 출발, 오후 7시 36분 용산역 도착으로 바뀌었다. 하행선은 오전 9시 44분에 용산역에서 출발해 낮 12시 38분에 장성에 도착하던 노선이 낮 12시 45분 용산 출발, 오후 2시 41분 도착으로 변경됐다.

오전 6시 25분에 장성에서 출발해 9시 32분에 서울에 도착하는 상행선과 오후 5시 10분에 용산에서 출발해 오후 7시 51분에 장성을 경유하는 하행선은 하행 구

간만 5분 가량 단축된 것 외에도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시간은 10월 1일부터 적용돼 운행 중이다.

김한중 군수는 “호남고속선 직결 운행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노선도 고속선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축제 폐막일인 지난 11일 대한민국 공공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영산강 하늘을 가로지르며 에어쇼를 선보였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2026 나주영산강축제’ 54만명 운집

12만평 꽃정원과 ‘나주’만의 콘텐츠에 전국 관광객 발걸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영산강 축제의 꽃정원을 5만평 확대하고 역사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에서 열린 ‘2026 나주영산강축제’에 역대 가장 많은 54만명이 다녀갔다. 특히 개막일인 7일에만 9만명이 방문했으며 한글날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았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공간의 확장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7만평이었던 꽃단지 12만 평으로 넓혀 코스모스와 데싸리, 해바라기, 백일홍, 메밀 등으로 대규모 가을꽃 정원을 꾸몄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에도 지역의 역사적 특색을 반영했다.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왕후, 장화’를 비롯해 영산강 양암바위

설화를 무대화한 공연, 시민들이 참여한 나주목사 부임행사 등이 선보였다.

축제장 밖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지역 점포 이용객에게 제공한 ‘광 없는 행운소비 즉석복권’은 축제 기간 매일 조기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윤병대 시장은 “영산강정원을 사계절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대표 국가정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광양,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전 본격화

홍보 서명운동 민·관·산·학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에 힘 모은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와 최근 섬진강유역환경청 광양 유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서명운동과 홍보 등 민·관·산·학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찬권 광양시 환경정책팀장은 섬진강의 수질·수생태계 보전과 광양만권 국가핵심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섬진강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행정기관인 광양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섬진강은 상·하류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공유하는 유역으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와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고, 광양은 섬진강 하구와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산업환경과 수생태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광양 유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위원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이 함께 대응하며 시민 대상 홍보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다. 지역 환경관리

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광양 유치 필요성 홍보 및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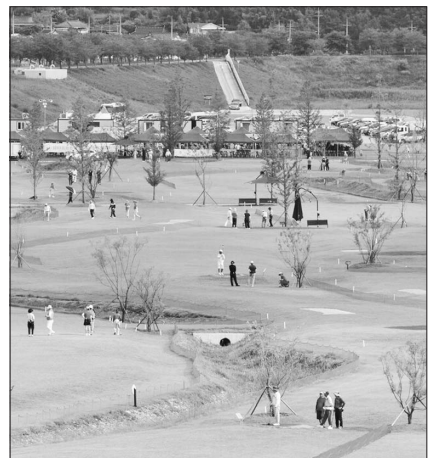
광양시 관계자는 “섬진강유역환경청 광양 유치는 섬진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상·하류 간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핵심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의 민·관·산·학 협력기구인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와 함께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순·능주 파크골프장의 누적 방문객이 12만118명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관외 방문객은 7만7087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민이 찾는 생활체육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군은 관외 방문객 유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자매결연·우호교류·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의 주민의 기본 이용요금은 화순파크골프장 8000원, 능주파크골프장 6000원이며,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은 각각 6000원과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주광역시 북구민도 10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외 이용객과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에게는 결제금액의 50%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지급받은 상품권을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체육시설 방문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화순·능주 파크골프장은 10월 한 달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이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는 동계 운영시간이 적용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

이맹우 화순군 관광체육과장은 “관의 방문객 비율이 높은 만큼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화순을 더 많이 찾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이용환경 개선에 힘써 쾌적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